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홍콩 키위(참다래) -

2020. 01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목 차]

I. 국내 시장동향	227
1. 생산현황	227
2. 유통현황	233
3. 소비현황	240
4. 수출현황	246
II. 홍콩 시장동향	250
1. 생산현황	250
2. 유통현황	250
3. 소비현황	256
4. 수입현황	258
III. 시장현황비교분석	263
1. 시장현황비교	263
2. 수출국 시장분석	264
IV. 시장확대방안	266
1. 품목유망성	266
2. 시장확대방안	268

I. 국내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키위는 크게 과육의 색깔에 따라 △그린키위 △골드키위 △레드키위로 분류됨

- 그린키위의 대표 품종은 ‘헤이워드(Hayward)’로, 전국 키위 재배면적의 약 70~80%를 점유하고 있음
 - 그린키위는 껍질에 톡톡하며 저장성이 높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단수가 높아 10a당 2.0~2.5톤 생산이 가능함
 - 헤이워드는 뉴질랜드계 품종으로 로열티 기간이 만료되어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자유롭게 재배가 가능함
 - 국내에서 육성된 그린키위 품종으로는 스위트골드, 감록 등이 있음
- 골드키위의 대표품종은 ‘제스프리 골드’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호트16에이(Hort16A)’로, 전국 키위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함
 - 헤이워드보다 단수가 높아 10a당 3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다수확성 품종이나, 제스프리사가 소유한 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함
 - 국내에서 육성된 골드키위 품종으로는 제시골드, 해금 등이 있음
- 레드키위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중국계 품종인 ‘홍양’, 뉴질랜드계 품종인 ‘엔자레드’ 등이 있음
 - 레드키위 품종은 그린 및 골드키위에 비해 개화와 수확이 가장 빠르나 껍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당도 품종이기 때문에 출하가격이 높아 농가의 재배의향이 높으며, 주로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키위 육종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골드키위 10품종, 그린키위 7품종(미니품종 포함), 레드키위 1품종, 수분수 3품종 등 총 21개의 품종을 육성함
 - 국산 키위 품종의 보급률은 2006년 0% 수준에서 2015년 21.7%로 9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향후 2020년까지 보급률 2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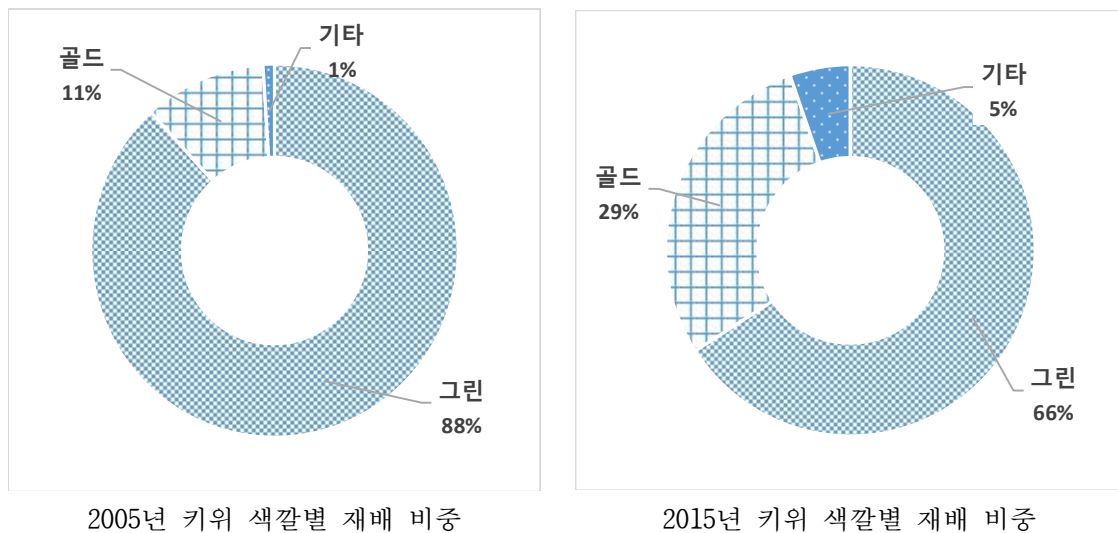
1) 1991년 국내산 키위와 수입산 키위의 구분을 위해 국내에서 재배되는 키위를 ‘참다래’로 명명하였으나 최근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키위로 명칭을 통일함(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

〈그림 I -1-1〉 국내 키위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하이워드	스위트골드	감록
골드 키위			
	제시골드	골드윈	한라골드
			
레드 키위	홍양	엔자레드	제홍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www.hallagold.co.kr)

〈그림 I -1-2〉 키위 색깔별 비중



*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관소개>과학원>부서업무>남해출장소(www.nihhs.go.kr)

□ 기존 그린키위에 편중되어 있던 키위 품종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임

- 2015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그린키위 66.0%, 골드키위 29.0%, 기타 품종 5.0%로 집계됨
- 2005년 88.3%에 달하던 그린키위의 비중이 2015년 66.0%로 하락한 반면, 골드키위 품종은 종전 12.0% 수준에서 29.0%까지 확대되어 최근 10년간 키위 품종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재배기술의 고도화, 생산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재배기술의 발달과 시장 내 수요변화에 따라 그린키위 단일 품종을 재배하던 생산농가들은 골드, 레드 등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자 함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8년 국내 키위 생산량은 20,000톤²⁾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2만 2,000톤에서 2만 3,500톤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³⁾

- 국내 키위 생산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7년 기준 키위 주요 생산지인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생산량은 2만 1,480톤가량으로 확인됨⁴⁾
- 동년 제주지역의 키위 생산량은 8,498톤으로 주요 생산지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키위 재배면적은 주 생산지 중 가장 규모가 작으나, 시설재배로 인해 단수가 높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전남지역의 생산량은 6,904톤, 경남에서는 6,078톤의 키위가 생산되었음
- 국내 키위 도입 초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지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1999년부터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시설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3) 전남대학교 조정안 교수 인터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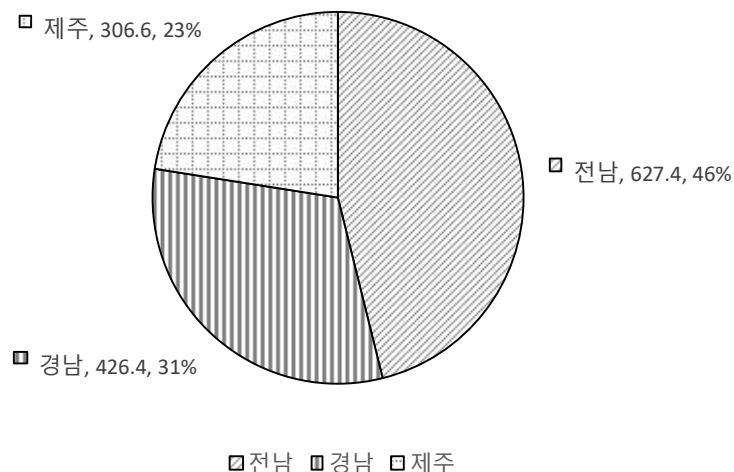
4)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2017년 전국의 키위 재배면적은 1,360.4ha로 집계됨⁵⁾

- 국내 키위 주 생산지 중 전남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으며, 뒤이어 경남, 제주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남의 키위 재배면적은 627.4ha로 집계되었으며, 경남 426.4ha, 제주 306.6ha로 집계됨
 -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노지재배 방식으로 키위가 생산되고 있어 시설재배로 키위를 생산하는 제주 지역보다 단수가 낮아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키위는 발아기(3월) 및 개화기(5월)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⁷⁾에서 재배되어야하기 때문에 주로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 -1-3〉 2017년 지역별 키위 재배면적 비중



* 출처: 농업정보신문(www.nongup.net)

- 국내에서 재배하는 키위의 품종별 재배면적은 헤이워드⁵⁾가 약 857.2ha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내 육성품종인 해금, 골드원, 한라스위트 등의 보급률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24.6%를 차지함⁸⁾

5)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6) 생산량과 동일하게 키위 재배면적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 생산지역의 재배면적으로 전국 규모를 추산함

7) 사양토, 사질양토 등

8) 참다래의 소비 트렌드와 대응방안, 농업정보신문(2019.04.08.)

다. 작기 및 출하기

□ 국내 키위 재배 시 발아기는 3월경으로, 품종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있음

- 골드키위와 레드키위의 발아기가 3월 초(3월 2일~8일)경으로 가장 이르며, 헤이워드 등 그린키위는 3월 중하순(3월 20일~25일)경으로 나타남
- 5월 초 개화기까지 생산지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개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I -1-1〉 키위 재배력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육 상태	신장기						꽃눈분화기			성숙기		낙엽기
	휴면기	봄아기			개화기	과실비대기					수확기	휴면기
재배 관리 주요 작업	밑거름				인공 수분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밑거름
	저장출하				꽃방울숙기	적과						저장 출하
	겨울전정		1 차 2 차 여 름 전 정 3 차 4 차								수확	겨울 전정

□ 키위의 주출하기는 10월 초순부터 11월 중하순까지임

- 품종별로 수확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1~2주가량 차이를 보임
 - 레드키위의 수확시기가 10월 초순으로 가장 빠르고, 약 20일 후 국내에서 육성한 골드키위 품종을 수확하며, 이후 헤이워드를 수확함
- 일반적으로 그린키위(주로 헤이워드 품종)는 당도 7.0° Bx를 기준으로 서리가 내리기 전 수확하며, 과중 후 180일 전후 수확하는 것이 가장 상품성이 좋음
- 골드키위 품종은 일반적으로 당도가 9.0° Bx 이상일 때 수확하며, 그린키위 품종과 달리 과육색깔이 황색으로 발현된 후에 수확해야 함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2019년 1월 1일부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키위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이 적용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등급규격

- 개정된 등급규격에서는 농산물의 크기(무게) 기준이 삭제됨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	품종 고유의 향미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향미가 양호한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털	털의 탈락이 없는 것	털의 탈락이 경미한 것	털의 탈락이 심하지 않은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이하인 것 부패 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경결점과	이하인 것	이하인 것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표1] 크기 구분

호 칭 구분	2S	S	M	L	2L
g/개	70 미만	70 이상 85 미만	85 이상 105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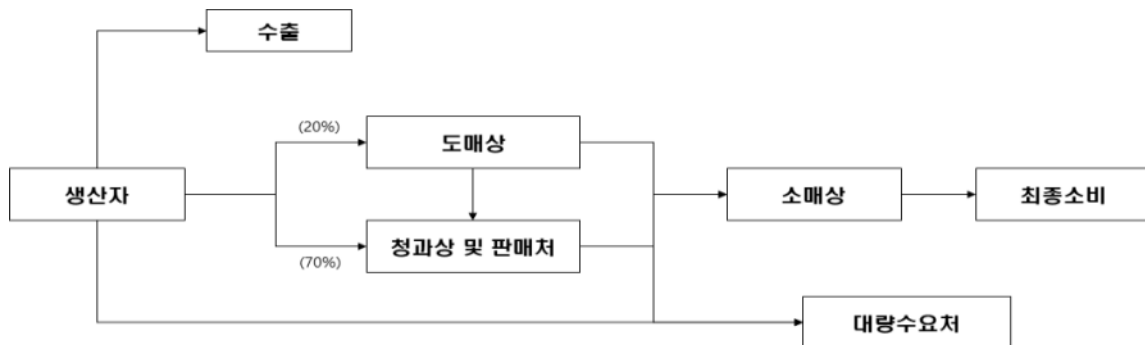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키위는 대부분 개별 농가나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연계된 청과상이나 판매처를 통해 출하됨

- 저온저장고가 없는 일부 농가는 농협을 통해 출하하기도 하나, 대다수의 농가는 과일 청과상 및 판매처로 전체 물량의 70~80%가량을 출하함
- 나머지 약 20%의 물량은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됨
 - 월별 도매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농가마다 수취 가격이 달라 재배농가들은 도매시장보다 대형유통업체의 유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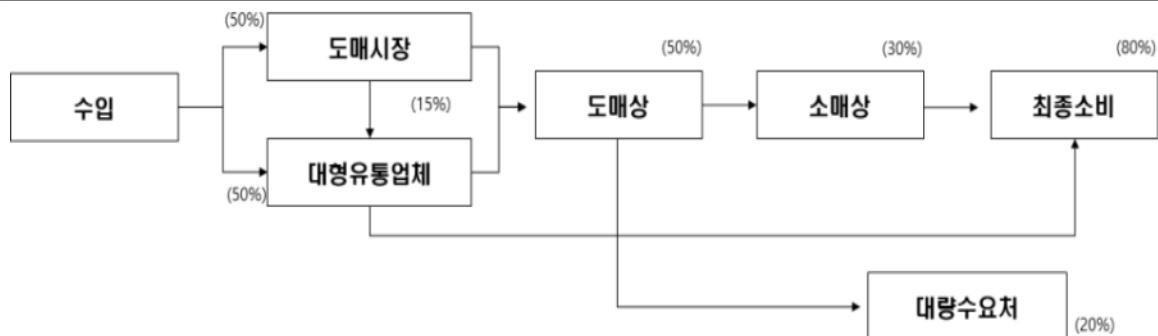
〈그림 I -2-1〉 국내산 키위 유통구조



* 출처: 키위 생산농가 방문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 수입산 키위는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각각 유통됨
- 대부분 국산 키위 수매업체가 수입산 키위도 수입하여 유통하는 구조를 띠

〈그림 I -2-2〉 수입산 키위 유통구조



* 출처: 수입농산물유통실태 「키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바탕으로 재구성

9) 키위 생산농가 방문 인터뷰 결과 반영(2019-06-05)

2) 도·소매현황

□ 2018년 전국 도매시장의 키위 반입물량 9,274톤 중 국내산 반입물량은 4,902톤 (52.9%), 수입산 4,372톤(47.1%)으로 비교적 유사한 비중을 나타냄

- 국내산 키위의 주출하기인 11월부터 저장물량이 소진되기 전인 익년 4월까지의 도매물량이 많은 편이나, 저장물량이 소진되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도매물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5월부터 10월까지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산 키위가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의 52.9%에 달하는 4,372톤 수준으로 집계됨
-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산 키위는 대부분 뉴질랜드산으로 전체 수입량의 89%를 차지하며, 이 외 칠레산은 전체 시장의 약 10%가량을 차지함
 - 한국 키위 유통 사업단은 뉴질랜드의 제스프리社와 2007년 MOU를 체결하여 키위 연중공급체계를 확립함
 - 북반구와 남반구의 키위 출하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키위가 생산되지 않는 5~10월에만 한국에 뉴질랜드산 키위를 수출함

〈표 I -2-1〉 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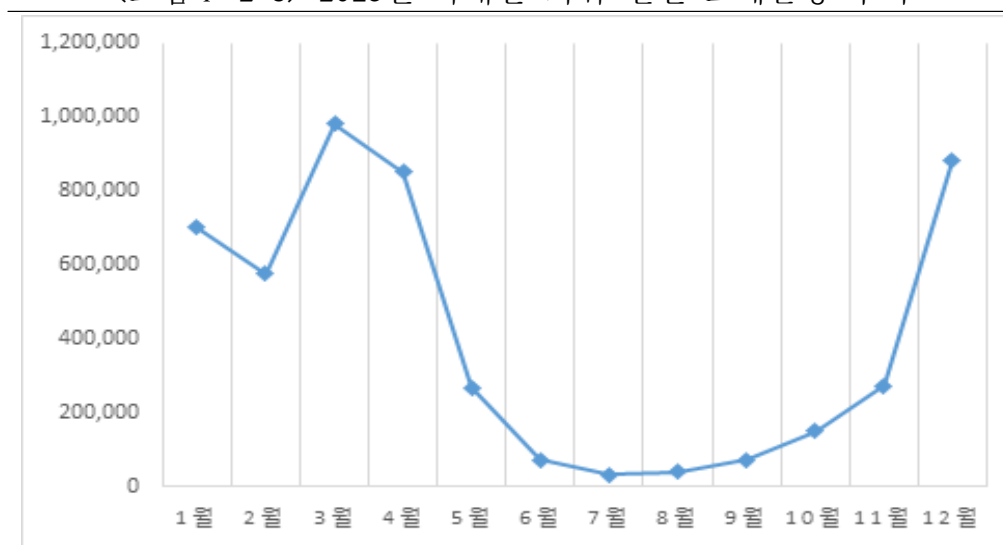
(단위: 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702	577	982	851	267	73	32	40	71	150	272	885	4,902

* 주: 전국도매시장 물량 중 수입산을 제외한 값임

* 출처: 농업관측 통계정보 시스템 KREI OASIS>도매시장>전국도매시장>가격/반입물량(oasis.krei.re.kr)

〈그림 I -2-3〉 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물량 추이



〈표 I -2-2〉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도매물량 추이

(단위: 톤)

2014	2015	2016	2017	2018
2,983	6,279	4,767	4,701	4,902

* 주: 전국도매시장 물량 중 수입산을 제외한 값임

* 출처: 농업관측 통계정보 시스템 KREI OASIS>도매시장>전국도매시장>가격/반입물량(oasis.krei.re.kr)

□ 2018년 기준 국내산 키위의 평균 도매가는 kg당 3,223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동년 키위 상품(上品)의 연평균 도매가는 kg당 3,465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54원가량 증가함
 - 3월의 도매가격이 3,576원/kg으로 가장 고가에 유통되며, 12월에는 3,258원/kg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유통됨
- 중품(中品) 키위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2,981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47원 가량 증가하였음
 - 중품의 월별 도매가격은 3월 3,096원/kg, 12월 2,756원/kg로 각각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함

〈표 I -2-3〉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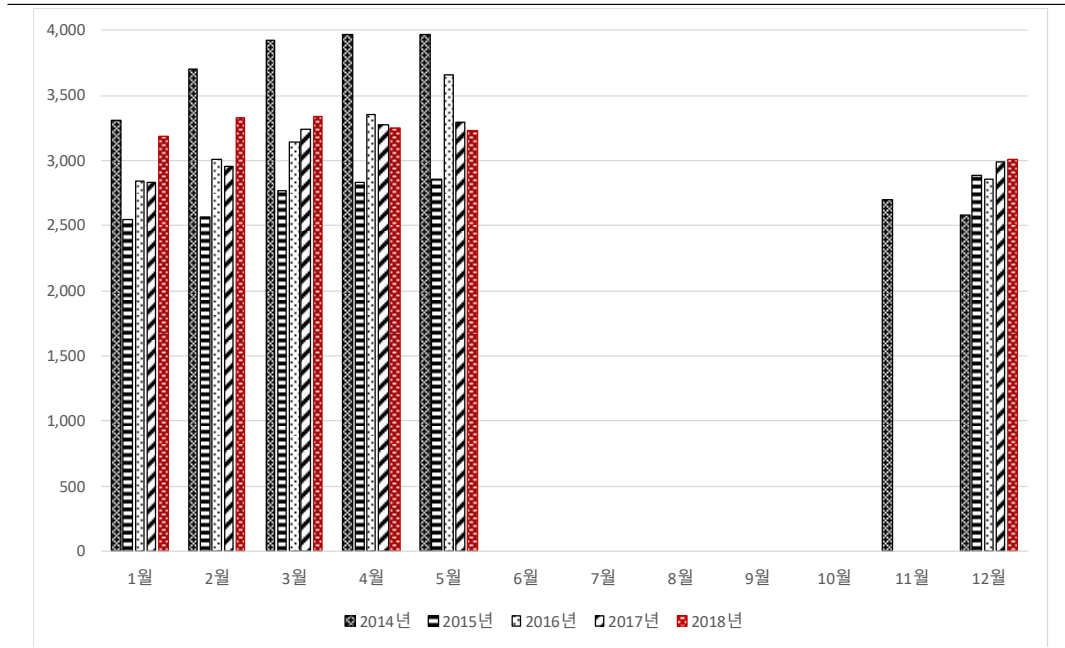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년	3,310	3,700	3,921	3,970	3,970	-	-	-	-	-	2,701	2,584	3,462
- 상품	3,520	3,910	4,140	4,200	4,200	-	-	-	-	-	2,910	2,790	3,678
- 중품	3,100	3,490	3,701	3,740	3,740	-	-	-	-	-	2,493	2,378	3,247
2015년	2,551	2,567	2,768	2,831	2,860	-	-	-	-	-	-	2,883	2,736
- 상품	2,770	2,791	2,993	3,051	3,080	-	-	-	-	-	-	3,110	2,958
- 중품	2,331	2,344	2,543	2,611	2,640	-	-	-	-	-	-	2,657	2,514
2016년	2,849	3,013	3,137	3,356	3,661	-	-	-	-	-	-	2,859	3,128
- 상품	3,069	3,228	3,347	3,571	3,891	-	-	-	-	-	-	3,089	3,347
- 중품	2,629	2,799	2,927	3,140	3,431	-	-	-	-	-	-	2,629	2,909
2017년	2,837	2,956	3,245	3,269	3,300	-	-	-	-	-	-	2,985	3,073
- 상품	3,064	3,182	3,502	3,511	3,540	-	-	-	-	-	-	3,223	3,311
- 중품	2,610	2,730	2,987	3,027	3,060	-	-	-	-	-	-	2,747	2,834
2018년	3,191	3,324	3,336	3,250	3,230	-	-	-	-	-	-	3,007	3,223
- 상품	3,431	3,564	3,576	3,490	3,470	-	-	-	-	-	-	3,258	3,465
- 중품	2,951	3,084	3,096	3,010	2,990	-	-	-	-	-	-	2,756	2,981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국내산 키위 도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4〉 2014~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평균 도매가는 kg당 3,968원으로 국내산보다 745원 가량 높은 수준임

- 동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상품(上品)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4,168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41원 증가함
 - 월별 도매가격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계되지 않으며, 5월이 kg당 4,292원으로 가장 높고 12월에 kg당 3,998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통됨
- 중품(中品)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3,768원으로 전년대비 399원 증가함
 - 월별 도매가격은 5월 가격이 3,893원으로 가장 높으며 12월 가격이 3,598원으로 가장 낮음

〈표 I -2-4〉 2014~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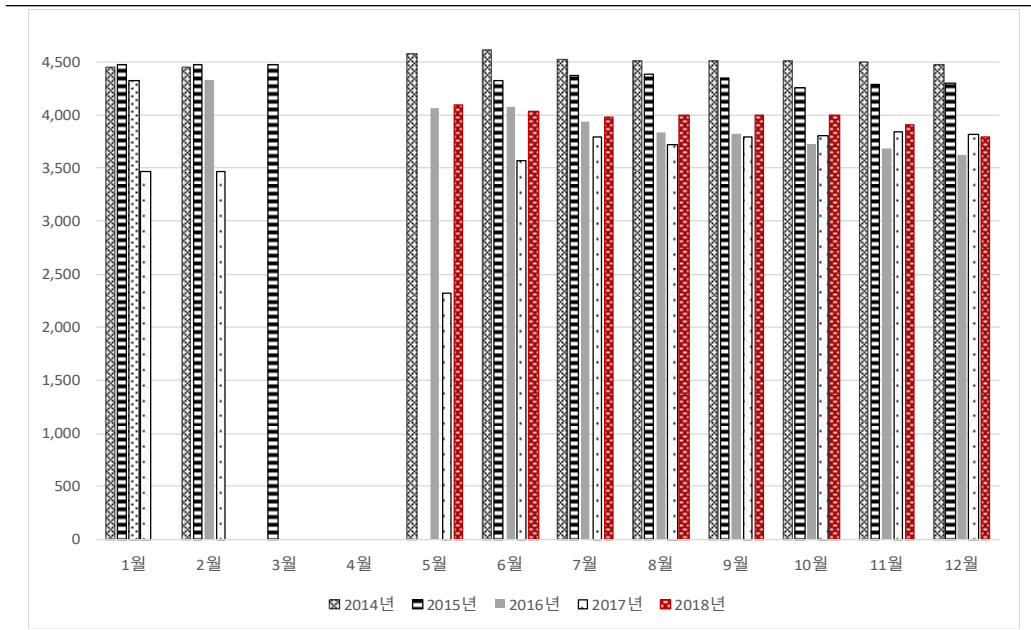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4,450	4,450	-	-	4,580	4,607	4,527	4,510	4,510	4,510	4,504	4,470	4,510
2015	4,470	4,470	4,470	-	-	4,319	4,373	4,390	4,352	4,263	4,290	4,299	4,357
2016	4,325	4,330	-	-	4,069	4,077	3,939	3,837	3,830	3,729	3,690	3,619	3,915
2017	3,472	3,470	-	-	2,320	3,567	3,800	3,714	3,790	3,810	3,850	3,814	3,598
2018	-	-	-	-	4,093	4,031	3,989	3,997	4,000	4,000	3,912	3,799	3,968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뉴질랜드산 키위 도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1 -2-5〉 2014~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도매가격 추이



□ 2018년 평균 국내산 키위의 소매가는 개당 약 545원으로, 전년대비 소폭(3.9%) 감소함

- 월별 키위 소매가격은 비교적 일정하여 개당 500원대의 가격선을 유지함
- 국산 키위의 저장물량이 소진되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소매가격이 집계되지 않음

〈표 1 -2-5〉 2015~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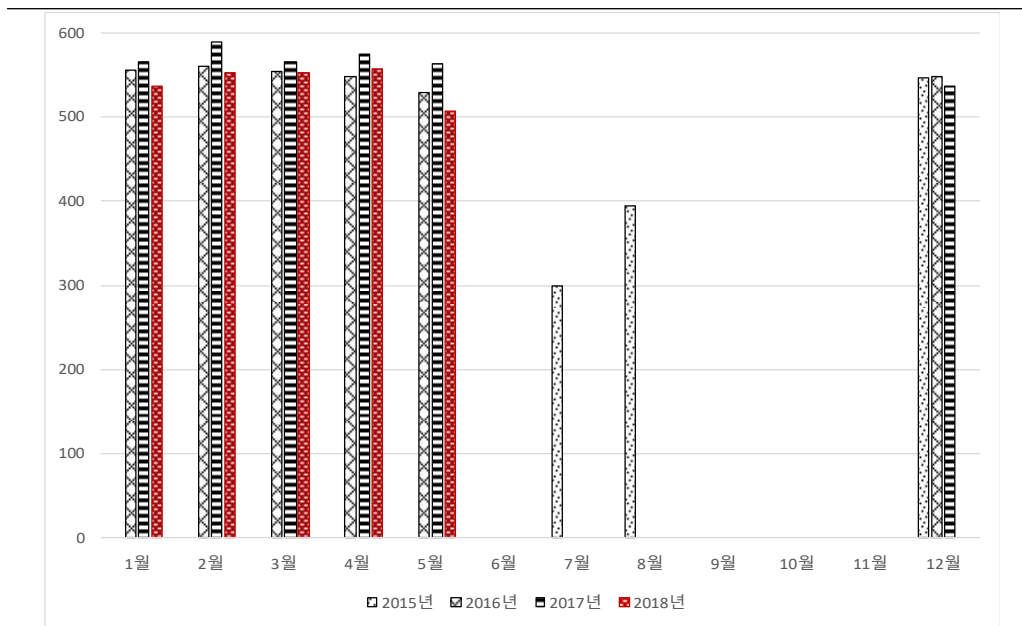
(단위: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	-	-	-	-	-	300.0	395.0	-	-	-	547.0	414.0
2016	556.2	560.6	554.7	547.5	529.0	-	-	-	-	-	-	548.3	550.6
2017	565.7	589.9	565.1	575.0	563.2	-	-	-	-	-	-	536.4	566.8
2018	537.5	552.4	553.5	557.0	507.1	-	-	-	-	-	-	-	544.5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국내산 키위 소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6〉 2015~2018년 국내산 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 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평균 소매가는 개당 585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함

- 뉴질랜드산 키위는 국산 키위가 유통되지 않는 시기인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유통되며, 국내산 키위의 소매가격보다 40.6원 높은 수준에 유통됨
- 2018년 기준, 국산 키위의 저장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5월에 뉴질랜드산 그린키위의 국내 소매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I -2-6〉 2015~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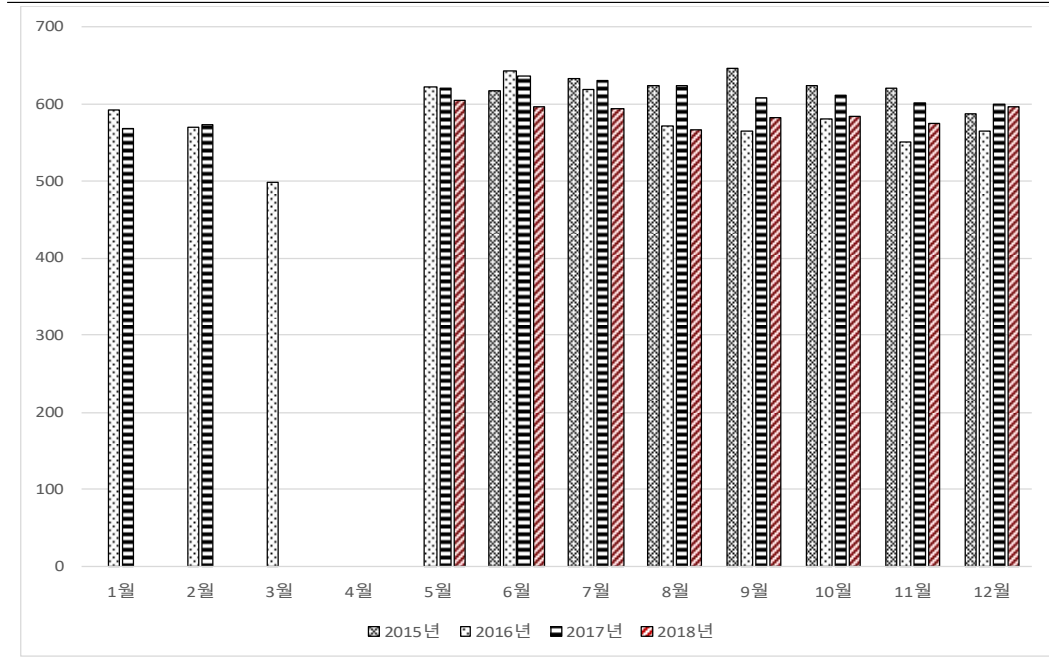
(단위: 원/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5	-	-	-	-	-	617.6	632.4	624.1	647.1	623.3	620.0	587.5	621.7
2016	591.8	569.9	498.0	-	621.6	642.2	619.4	572.5	564.5	581.2	550.3	564.0	585.9
2017	568.8	574.2	-	-	620.4	635.8	630.8	624.3	608.8	612.1	601.0	598.9	609.8
2018	-	-	-	-	604.7	595.4	593.7	566.4	581.8	583.5	574.6	595.2	585.1

* 주: 국내 시장 유통 중인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소매가격 상품, 중품의 평균치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그림 I -2-7> 2015~2018년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월별 소매가격 추이



3. 소비현황

□ 국내 키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대비 2016년 전체 소비량은 40.5%가량 증가한 5만 1,424톤으로 집계됨

- 식품의 건강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와 맞물려 국내 키위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식품영양학회에 따르면 과일의 영양 우수성 평가¹⁰⁾에서 키위가 1위를 차지해 영양적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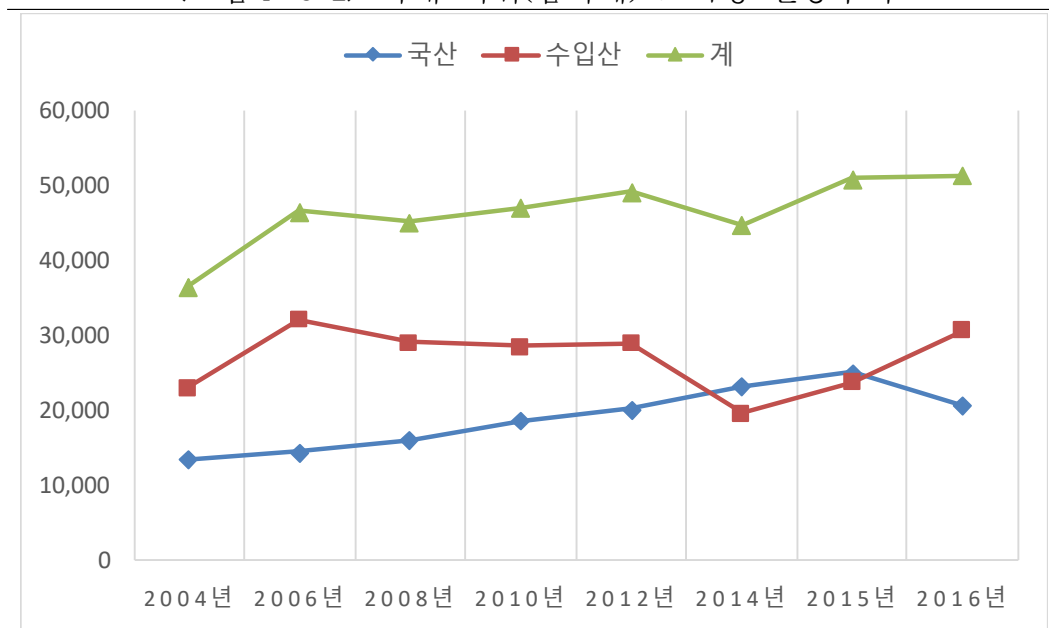
〈표 I -3-1〉 국내 키위(참다래) 소비량 변동추이

(단위: 톤)

구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국산	13,500	14,500	16,050	18,601	20,232	23,183	25,159	20,689
수입산	23,100	32,122	29,085	28,515	28,945	19,590	23,822	30,735
계	36,600	46,612	45,135	47,116	49,177	44,787	50,996	51,424

* 출처: 제주도 지역농업신문 「새로운 제주농업」 2018-02월호

〈그림 I -3-1〉 국내 키위(참다래) 소비량 변동추이



10) 농사로 작목기술정보 「키위 이용 및 가공품 제조방법」

□ 농촌진흥청¹¹⁾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그린키위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골드키위와 레드키위 구매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맛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서 기인하는데, 소비자들은 신맛이 강하고 단단한 그린키위보다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를 선호하기 때문임
- 또한 국내산 레드키위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비타민C 함유량을 기준으로 그린키위 100g 기준 30~8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 레드키위는 140mg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과일로 평가됨¹²⁾

□ 국내 소비자들은 주로 생식용으로 키위를 구매하며, 요리나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키위의 가공용 소비비중은 0.3%로 전체 17개 과종¹³⁾ 중 11위에 위치함
- 키위는 단가가 높아 업무용 소비에 적합하지 않으며, 기형과 등 상품성이 없는 키위의 경우 주스나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소비됨
- 키위로 제조된 가공품 유형은 넥타, 잼, 음료 등이 있으며 이 중 잼의 비중이 31.9%로 가장 높음

〈표 I -3-2〉 국내 키위 가공품 유형 및 비중

(단위: 톤, %)						
구분	넥타	잼	음료	조미	기타	합계
물량(톤)	11	185	1	18	366	580
비중(%)	1.9	31.9	0.2	3.1	63.1	100

* 출처 : 「과실류 가공현황 2016」,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은 548g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이후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 국내 키위 섭취량은 2010년 연간 약 1.2kg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약 500~600g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키위의 폴리페놀 성분인 퀘르세틴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키위의 효능이 주목받게 되었음

11)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1,520가구 대상(2018년 기준)

12) 월간원예

13)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유자, 감, 복분자, 매실, 머루, 오디, 오미자, 키위, 파인애플, 무화과, 살구

- 키위 중과(M사이즈)를 평균 80~100g으로 보았을 때, 국민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키위는 약 5~6개로, 두 달에 키위 한 개를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임

〈표 I -3-3〉 2008~2017년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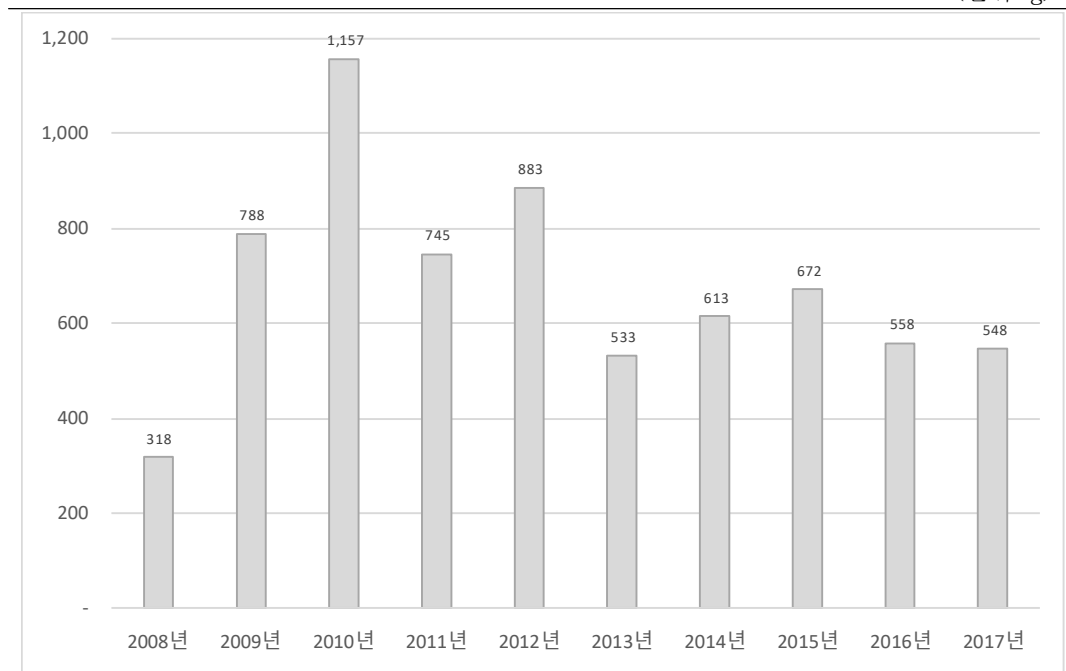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일섭취량	0.87	2.16	3.17	2.04	2.42	1.46	1.68	1.84	1.53	1.50
연간섭취량	318	788	1,157	745	883	533	613	672	558	548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국민영양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www.khidi.or.kr)

〈그림 I -3-2〉 2008~2017년 1인당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지역별 키위 섭취량은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7년 중소도시의 키위 섭취량은 613g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많은 키위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544g으로 중소도시의 섭취량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읍/면지역에서의 키위 섭취량은 중소도시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365g으로 집계됨

〈표 I -3-4〉 2008~2017년 지역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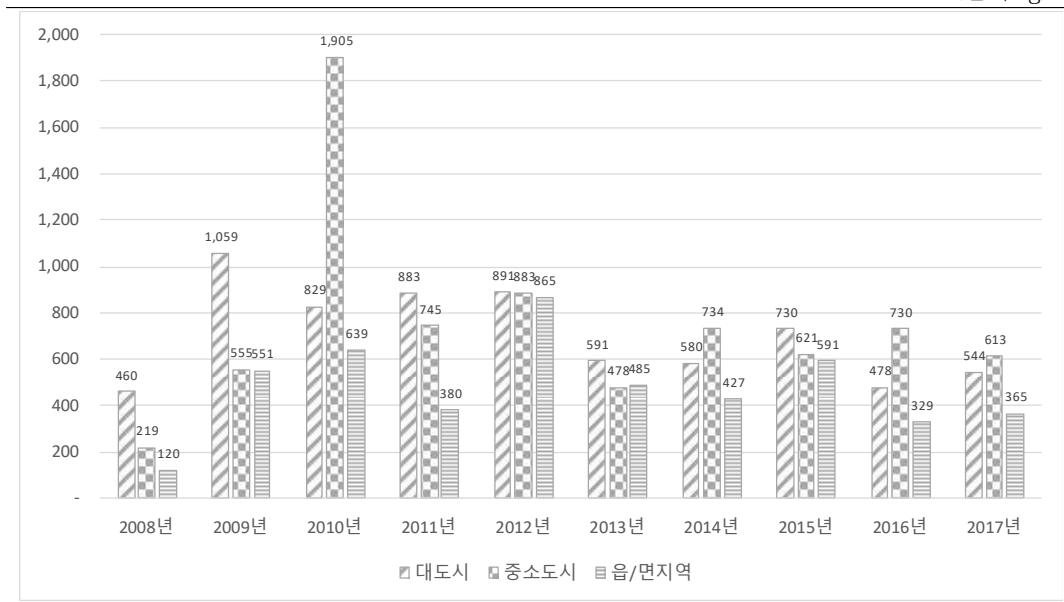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도시	460	1,059	829	883	891	591	580	730	478	544
중소도시	219	555	1,905	745	883	478	734	621	730	613
읍/면지역	120	551	639	380	865	485	427	591	329	365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국민영양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www.khidi.or.kr)

〈그림 I -3-3〉 2008~2017년 지역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여성의 연간 키위섭취량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과 2016년을 제외한 매년 여성의 키위 섭취량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여성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613g으로 남성의 섭취량인 482g의 약 1.3배 높음

〈표 I -3-5〉 2008~2017년 성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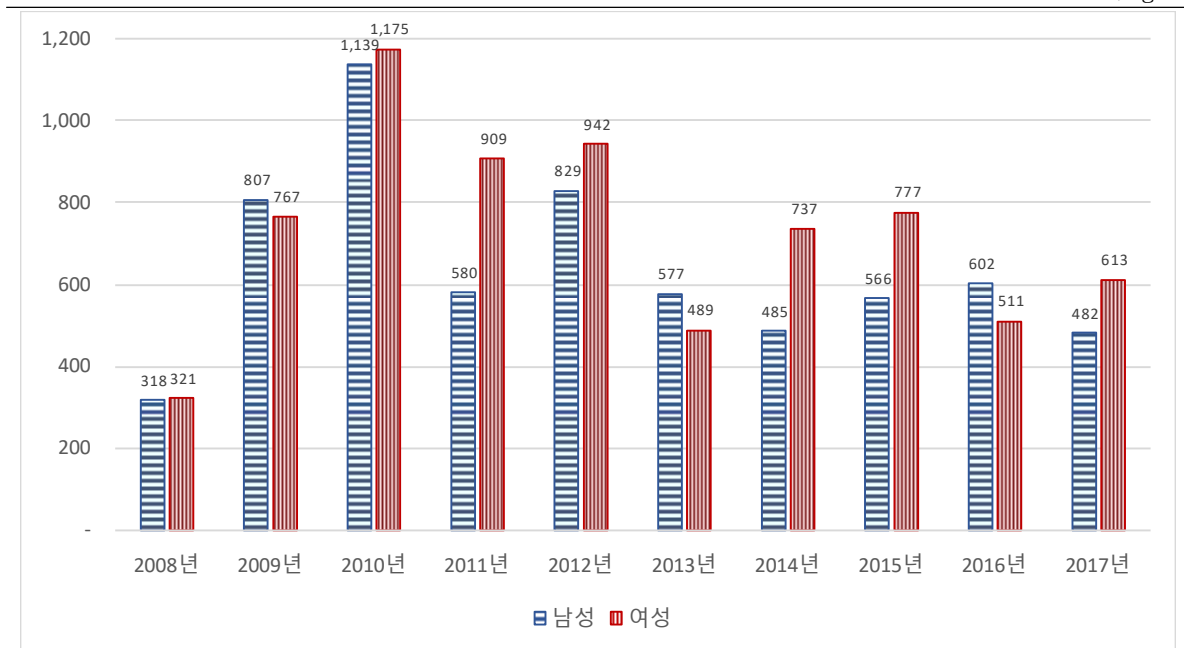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318	807	1,139	580	829	577	485	566	602	482
여성	321	767	1,175	909	942	489	737	777	511	613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국민영양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www.khidi.or.kr)

〈그림 I -3-4〉 2008~2017년 성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 연령대별로는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키위 섭취량이 비교적 높음

- 2017년 기준 영유아(1~5세)와 어린이(6~11세)의 키위 섭취량은 연간 500g 이상으로 평균 섭취량(548g)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3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의 키위 섭취량도 평균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됨
 - 30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의 연간 키위 섭취량은 580g, 50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의 섭취량은 635g으로 집계됨
- 반면 청소년(12~18세)과 청년(19~29세), 고령(65세 이상)층의 키위 섭취량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I -3-6〉 2008~2017년 연령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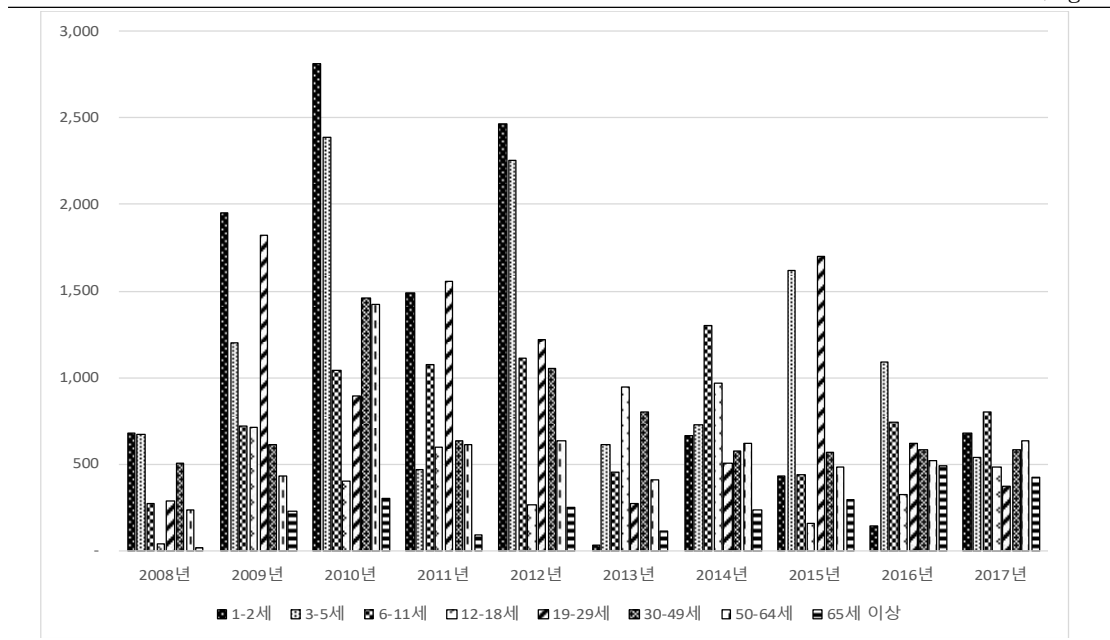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세	679	1,949	2,811	1,486	2,467	33	668	431	146	679
3-5세	675	1,201	2,387	471	2,252	610	726	1,617	1,091	540
6-11세	274	715	1,040	1,073	1,110	456	1,303	438	741	803
12-18세	40	712	402	595	266	942	967	161	329	485
19-29세	285	1,825	894	1,555	1,215	274	507	1,705	621	372
30-49세	507	610	1,460	635	1,048	803	577	569	584	580
50-64세	234	434	1,424	613	635	405	621	482	518	635
65세 이상	18	226	303	88	248	113	237	296	493	423

* 주: 일일 섭취량(g)을 바탕으로 연간 소비량 산출(일일소비량*365일)

* 출처: 국민영양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www.khidi.or.kr)

〈그림 I -3-5〉 2008~2017년 연령별 연간 키위 섭취량

(단위: g)



4. 수출현황

1) 키위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수출물량은 438톤으로 전년대비 60.8% 감소함

- 동년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對일본 수출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한국산 키위의 일본시장 진입에 따라 전체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함
 - 일본은 2016년 약 2만 6,000톤의 키위를 생산하였으나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그린키위로, 골드키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내 키위농가에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치 등 안전성 기준규격을 준수하지 못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는 키위 수출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 물량의 63.7%에 달하는 279톤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됨
- 이 외에도 對홍콩 수출물량은 약 91톤(20.8%)으로 나타나며, 말레이시아(6.6%), 미국(5.7%), 싱가포르(2.7%) 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표 1 -4-1〉 2009~2018년 한국 키위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0.8	12.7	0.5	0.3	0.9	154.5	257.6	1,389.4	1,118.4	438.0
1 일본	-	0.3	-	-	0.1	2.0	59.9	1,178.7	1,064.1	279.4
2 홍콩	-	0.3	0.5	-	0.4	140.5	103.9	121.4	11.9	90.7
3 말레이시아	-	0.5	-	-	-	-	5.1	38.0	20.8	28.9
4 미국	-	2.0	-	-	-	-	10.9	17.0	-	25.2
5 싱가포르	-	9.0	-	-	-	8.4	58.9	26.8	20.2	12.3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국내 키위의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수출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익년 5월까지 이어짐

- 일본으로의 수출은 11월부터 시작되어 4월까지 진행되며, 2월과 3월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對홍콩 수출은 10월부터 시작되며, 12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됨
 - 또한 3월과 4월에 약 3톤가량의 키위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I -4-2〉 2018년 한국 키위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54.7	89.1	86.8	23.8	2.8	-	-	65(kg)	89(kg)	34.8	49.4	96.5
1 일본	29.6	88.9	86.6	20.9	-	-	-	-	-	-	12.0	41.3
2 홍콩	-	-	-	2.9	2.8	-	-	-	-	11.1	25.4	48.5
3 말레이시아	-	-	0.1	-	-	-	-	-	-	10.9	11.2	6.7
4 미국	25.1	80(kg)	-	-	-	-	-	-	-	-	-	-
5 싱가포르	-	-	-	-	-	-	-	-	-	11.6	0.7	-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수출단가는 kg당 4.7달러(한화 약 5,593원)로 전년대비 67.9% 증가함

- 이는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특히 對홍콩 수출단가가 크게 증가함
 - 홍콩으로의 수출단가는 전년도 7.2달러(한화 약 8,568원)/kg에서 10.1달러(한화 약 1만 2,019원)/kg으로 약 40.3% 증가함
-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對일본 수출단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kg당 2.7달러(한화 약 3,213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

〈표 I -4-3〉 2009~2018년 한국 키위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3.7	3.0	3.8	7.9	8.8	8.6	5.9	3.2	2.8	4.7
1 일본	-	6.6	-	-	8.0	4.2	3.6	2.8	2.6	2.7
2 홍콩	-	3.1	3.9	-	12.5	8.9	7.6	5.2	7.2	10.1
3 말레이시아	-	2.7	-	-	-	-	6.7	3.5	4.2	6.1
4 미국	-	2.7	-	-	-	-	4.0	3.8	-	4.0
5 싱가포르	-	2.9	1.5	-	2.1	5.8	6.3	7.2	7.2	6.5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2) 對홍콩 수출추이

□ 2018년 한국산 키위의 對홍콩 수출물량은 91톤으로 전년대비 659.40% 증가함

- 2010년 한국산 키위가 홍콩으로 소량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짐
- 2014년 이후 한국산 키위의 對홍콩 수출물량은 10만kg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표 I -4-4〉 2009~2018년 한국산 키위 對홍콩 수출현황

(단위 : kg)				
2009	2010	2011	2012	2013
0	260	450	0	372
2014	2015	2016	2017	2018
140,510	103,866	121,407	11,944	90,703

* 주 : HS Code 0810.5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기준 對홍콩 한국산 키위 수출단가는 kg당 10.14달러(한화 약 1만 2,019원)로 집계됨

- 이는 전년대비 41.6% 증가한 수준으로, 한국산 키위의 홍콩 수출단가는 최근 6년간 평균 8.59달러(한화 약 1만 222원)으로 나타남

〈표 I -4-5〉 2013~2018년 한국산 키위 對홍콩 수출단가 변동추이

(단위: 달러/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對세계 수출단가	8.77	8.55	5.94	3.18	2.78	4.68
對홍콩 수출단가	12.5	8.93	7.56	5.23	7.16	10.14

* 주 : HS Code 0810.50 기준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 한국산 키위는 10월부터 홍콩으로 수출되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며, 4월과 5월에도 소량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12월의 수출물량이 연간 수출물량의 53.5%에 달하는 48톤으로 집계됨
 - 뒤이어 11월과 10월의 수출물량이 25톤(28.0%), 11톤(12.3%)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10월부터 12월은 한국의 키위 주출하기로,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음
- 4월과 5월에는 수출물량은 각각 3톤 수준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약 3%가량을 차지하며 소량 수출되고 있음
 - 5월은 한국산 키위의 저장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로 이후 수출물량은 집계되지 않음

〈표 I -4-6〉 2018년 월별 키위 수출추이

(단위: kg,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對홍콩 수출물량	-	-	-	2,892	2,802	-	-	-	-	11,130	25,391	48,484
월별 비중	-	-	-	3.2	3.1	-	-	-	-	12.3	28.0	53.5

*주: HS Code 0810.50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행정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산 키위는 홍콩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표 I -4-7〉 2018년 홍콩 키위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0%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II. 홍콩 시장동향

1. 생산현황

- 홍콩에서는 키위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국 내 소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함
 - 지리적으로 홍콩은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 국토 면적 1,106km² 중 오직 7km²에서만 경작이 가능함¹⁴⁾
 - 홍콩의 국토 면적이 대부분 도시화됨에 따라 농업이 전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 이하로 나타남¹⁵⁾
 - 이에 농지에서는 주로 가축을 키우거나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과일은 일부 저지대에서 리치, 룡간, 구아바, 파파야, 바나나 등 일부 열대과일만을 재배함

2.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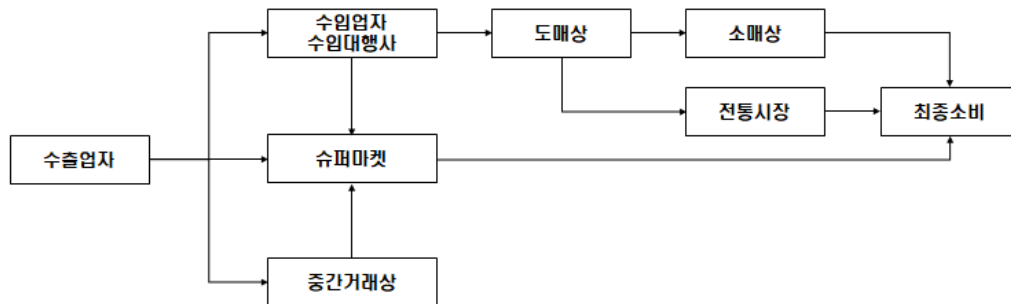
1) 유통구조

- 홍콩 내 신선농산물은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 슈퍼마켓, 중간거래상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전량 수입됨에 따라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 슈퍼마켓, 중간거래상으로 물량이 유통되며, 다시 슈퍼마켓,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전통 시장 및 소매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함
 - 홍콩은 수입과일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와 도매상들은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이며 과일 유통·소매상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 있음
 - 홍콩에서는 재고량, 소비적기, 숙성도, 주요 재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요 등에 따라 과일의 가격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임

14) 「Hong Kong: The Facts - Agriculture and Fisheries」 - gov HK, 2019-04

15) 「Planning for Agricultural Uses in Hongkong」 - Planning Department HKSARG, 2016-10

〈그림 II -2-1〉 홍콩 신선농산물 유통구조



* 출처 : 「Hong Kong Food Retail Industry」, USDA(2018.06.22)

2) 도 · 소매가격

- 홍콩 내 신선과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으로는 야우마테이 도매시장(Yau ma tei Wholesale fruit market), 서부도매시장(Western Wholesale Food Market), 북부농산물도매시장(North District Temporary Wholesale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등이 있음
 - 야우마테이 도매시장은 1913년에 설립된 홍콩 최대 과일 도매시장으로, 약 240 여 개의 도매상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도매시장 내에서 홍콩 로컬과일의 비중은 미미하며 수입 과일 중에서도 특히 일본산 과일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 홍콩 주요 소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스프리의 그린키위는 개당 0.31달러(한화 약 358원), 골드키위는 0.53달러(한화 약 613원), 점보그린키위는 개당 1.15달러(한화 약 1,330원)에 유통되고 있음

〈표 II -2-1〉 홍콩 키위 소매 가격

항목	브랜드	원산지	개당 가격	단위
그린키위(3개 1팩)	제스프리	뉴질랜드	0.31달러(한화 약 358원)	개
골드키위(3개 1팩)	제스프리	뉴질랜드	0.53달러(한화 약 613원)	개
점보그린키위(4개 1팩)	-	뉴질랜드	1.15달러(한화 약 1,330원)	개

* 출처 : 「Hong Kong Fresh Fruits Product Brief」, USDA(2018.08.23)

3) 제품분석

□ 홍콩에서 판매되는 키위는 뉴질랜드산이 지배적이며, 재래시장에서는 중국산 키위도 판매되고 있음

- 조사된 16개의 키위 중, 14개가 뉴질랜드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골드키위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
 - 재래시장을 제외한 식품유통채널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만 유통하고 있음
- 뉴질랜드산 키위의 평균가격¹⁶⁾은 6.5HKD(한화 약 978원)¹⁷⁾로 집계되며, 중국산은 5.7HKD(한화 약 857원)로 나타남
- 홍콩에서 키위는 주로 별도의 포장없이 날개로 판매되는 형태가 다수임
 - 주로 매대에 다량의 키위가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여 담을 수 있음
 - 일부 채널에서는 포장·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 슈퍼마켓에서 뉴질랜드산 골드키위를 비닐 랩에 싸인 형태의 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는 중국산을 플라스틱 포장에 판매하고 있음
 - 포장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매대에 대량 진열된 상품보다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홍콩 내 판매되는 키위는 별도의 마케팅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제스프리社가 뉴질랜드산 키위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 별도의 판매 매대에 ‘1일 1개 섭취’, ‘영양이 풍부함’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건강을 중심으로 홍보함

사진		
품명	그린키위(奇異果)	골드키위(金奇異果)
원산지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판매처	Great Food Hall	Great Food Hall
가격	16.6HKD/4개	23.3HKD/4개

16) 같은 상품의 10개 묶음판매와 15개 묶음판매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1개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계산함

17) 환율기준 : 1.00HKD=150.47원(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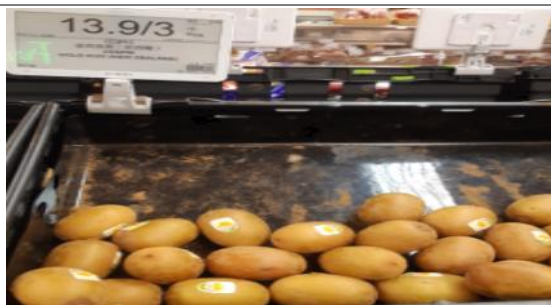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그린키위(奇異果) 뉴질랜드산 Market Place by Jasons(고급식료품점) 11.9HKD/4개	골드키위(金奇異果) 뉴질랜드산 Market Place by Jasons(고급식료품점) 15.9HKD/3개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그린키위(大壯靑奇異果) 뉴질랜드산 Taste(슈퍼마켓) 10.9HKD/3개	골드키위(金奇異果) 뉴질랜드산 Taste(슈퍼마켓) 13.9HKD/3개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골드키위(金奇異果) 뉴질랜드산 ParknShop(슈퍼마켓) 13.9HKD/3개	그린키위(靑奇異果) 뉴질랜드산 ParknShop(슈퍼마켓) 12.9HKD/5개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그린키위(奇異果) 뉴질랜드산 Wellcome(슈퍼마켓) 12.9HKD/5개	골드키위(金奇異果) 뉴질랜드산 Wellcome(슈퍼마켓) 14.9HKD/3개

사진			
품명	그린키위(青奇异果)	골드키위(金奇异果)	골드키위(金奇异果)
원산지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판매처	AEON(대형마트)	AEON(대형마트)	AEON(대형마트)
가격	17.9HKD/4개	21.9HKD/3개	33.9HKD/3개
사진			
품명	레인보우키위(彩虹奇异果)	레인보우키위(彩虹奇异果)	골드키위(金奇异果)
원산지	중국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판매처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야우마테이(재래시장)
가격	70HKD/10개 100HKD/15개	50HKD/12개 20HKD/4개	50HKD/5개
사진			
품명	골드키위(金奇异果)	골드키위(金奇异果)	골드키위(金奇异果)
원산지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판매처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야우마테이(재래시장)
가격	50HKD/5개 100HKD/10개	100HKD/9개 50HKD/4개	100HKD/7개

□ 홍콩에서 유통되는 뉴질랜드산과 중국산 키위를 대상으로 2개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능검사를 진행함

- 뉴질랜드산 키위는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로 구분되며, 중국산의 경우 레인보우(레드)키위가 판매되고 있음
- 뉴질랜드산 그린키위는 과실이 다소 무른 편이며, 껍질의 색깔은 짙은 갈색에 가까움
 - 골드키위의 경우, 과실이 다소 무른 편이며 그린키위에 비해 껍질의 색깔이 옅음
 - 반면 중국산 레인보우키위는 과실이 딱딱하고 과육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
- 뉴질랜드산 골드키위의 당도가 17 °Bx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뉴질랜드산 그린키위가 15 °Bx, 중국산 레드키위가 13 °Bx로 확인됨
- 과중의 경우, 뉴질랜드산 골드키위가 102g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린키위 100g, 중국산 레인보우키위 97g 수준임

사진			
			
구분	그린키위	골드키위	레인보우키위
원산지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중국산
구매처	Great Food Hall	Great Food Hall	채래시장
당도	15 °Bx	17 °Bx	13 °Bx
무게	100g	102g	97g

3. 소비현황

1) 소비동향

□ 홍콩에서 소비되는 생식용 키위는 대부분 제스프리의 상품으로 확인됨¹⁸⁾

- 주로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제스프리 키위와 일부 일본산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산 키위의 인지도는 높지 않음¹⁹⁾
- 한국산 키위는 일부 식품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소비율이 미미함²⁰⁾

□ 홍콩에서 주로 키위는 생과일, 생과일 디저트, 가공품 형태로 소비되고 있음

- 더운 기후로 인해 주로 생과일주스 등 가공되어 소비되는 비중이 높음
- 이에 따라 소매유통채널에서 키위를 원재료로 한 가공품이 주로 소비되고 있음

〈그림 II -3-1〉 홍콩 키위 소비 방식

생과일 디저트		가공품	
주스	디저트 토핑	골드키위 요거트	이유식
			

* 출처 : 홍콩 주스브랜드 허유산(許留山) 홈페이지(<https://www.hkhls.com/>), 파크앤샵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parknshop.com/en/>)

□ 홍콩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된 과일섭취 촉진 캠페인으로 홍콩 내 과일 및 채소의 섭취량이 증가하였음

- ‘EatSmart@Restaurant.hk’ 캠페인은 2007년 홍콩 보건부와 교육부에서 홍콩 시민들의 과체중과 비만을 낮추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임
- 해당 프로그램은 높은 외식비율과 채소 및 과일 섭취비중이 낮은 식단 등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홍콩 시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18) 현지 수입업체 Topweal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6)

19) 현지 수입업체 P&C International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7)

20) 현지 수입업체 Topweal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6)

- 정부 주도하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식당을 검색할 수 있고, 과일 및 채소의 섭취권장량, 과일 및 채소를 활용한 레시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림 II -3-2〉 Eat@SmartRestaurant.hk 프로그램 로고 예시

		
과일 또는 채소로만 구성된 메뉴이거나 육류의 양의 최소 2배 이상이 과일 및 채소로 되어있는 음식	지방, 소금, 설탕의 함유량이 적어 '3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음식	앞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시에 프로모션가 혜택이 있는 음식

*출처 : Eat@SmartRestaurant.hk 캠페인 홈페이지(<https://restaurant.eatsmart.gov.hk>)

- Eat@SmartRestaurant.hk 캠페인 사이트 내 용과 키위 소고기 볶음, 프루티 파티 등 레시피가 기재되어있으며, 키위를 익히거나 생으로 요리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음

〈그림 II -3-3〉 키위를 활용한 레시피 예시

용과 키위 소고기 볶음	프루티 파티
	

* 출처 : Eat@SmartRestaurant.hk 캠페인 홈페이지(<https://restaurant.eatsmart.gov.hk>)

4. 수입현황

1) 홍콩 키위 수입현황

□ 2018년 홍콩의 키위 수입물량은 약 2만 1,676톤으로 전년대비 약 16.46% 감소함

- 홍콩의 키위 주요 수입 3개국은 전 세계 생산량 상위 3개국인 칠레, 뉴질랜드, 이탈리아로 나타남
 -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95.1%를 차지함
- 칠레산 키위의 수입물량은 약 1만 2,215톤으로 전체 수입의 56.4%를 차지함
 - 2018년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15.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입물량은 연평균 11%의 감소세를 보임
- 뉴질랜드산, 이탈리아산 키위는 각각 30.37%, 8.33% 비중을 차지하며 칠레산의 뒤를 잇고 있음
 - 동년 뉴질랜드산 키위는 6,584톤 수입되어 수입물량이 전년대비 3.2% 증가함
 - 동년 이탈리아산 키위는 전년대비 48.6% 감소한 1,806톤 수입됨
- 한국산 키위의 수입물량은 약 54톤으로 수입비중은 0.3%에 불과함
 - 2018년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325.7%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간 수입물량은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임

〈표 II -4-1〉 2009~2018년 홍콩 키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16,913	15,705	22,834	20,415	14,401	15,907	18,516	27,038	25,946	21,676
1	칠레	3,933	3,911	5,817	6,674	4,551	4,210	6,960	15,388	14,419	12,215
2	뉴질랜드	7,178	7,010	9,636	7,980	6,582	6,950	7,458	7,258	6,379	6,584
3	이탈리아	4,920	3,893	5,646	3,184	1,857	3,248	2,733	2,772	3,511	1,806
4	그리스	260	330	347	298	537	425	418	499	587	626
5	미국	7	129	29	23	1	42	5	221	356	100
8	한국	-	-	-	22	24	148	93	72	13	54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8년 홍콩의 평균 키위 수입단가는 kg당 2.22달러(한화 약 2,590원)로 집계됨

- 한국산은 6.74달러(한화 약 7,863원)/kg로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음
-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칠레산의 평균 수입단가는 1.4달러(한화 약 1,666원)/kg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뉴질랜드산 3.56달러(한화 약 4,236원)/kg, 이탈리아산 2.8달러(한화 약 3,332원)/kg로 확인됨

〈표 II -4-2〉 2009~2018년 홍콩 키위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1.8	1.9	2.1	2.3	2.2	2.6	2.3	2.0	2.1	2.2
칠레	1.1	1.1	1.3	1.2	1.4	1.3	1.3	1.4	1.4	1.4
뉴질랜드	2.3	2.6	2.8	3.4	3.0	3.3	3.3	3.3	3.4	3.6
이탈리아	1.8	1.4	1.7	2.0	1.9	2.4	2.3	2.4	2.3	2.8
그리스	1.4	1.2	1.5	1.2	1.5	1.7	1.5	1.1	1.3	1.8
미국	3.6	1.8	2.3	4.0	3.3	4.9	6.3	2.1	2.1	2.8
한국	-	-	3.3	1.9	1.7	9.2	6.6	3.1	6.7	6.7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의 키위 수입은 연중 이루어지며, 5월부터 수입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까지 지속됨

- 2018년 기준 5월 연중 최대물량인 1,375톤의 키위가 수입되었음
 - 이는 칠레산과 뉴질랜드산으로, 특히 뉴질랜드산 키위가 71.6%를 차지함
 - 뉴질랜드산 키위는 4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11월까지 이어짐
 - 칠레산 키위는 3월 400kg이 수입된 이후 5월에 최대물량인 388톤이 수입됨
- 홍콩으로 수입되는 이탈리아산 키위는 제스프리®의 상품으로, 뉴질랜드산 키위가 수입되지 않는 시기에 공급되며 연중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이탈리아산 키위는 9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뉴질랜드와 교차하며 11월과 12월 최대물량이 수입됨
 - 이후 다시 뉴질랜드산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4월까지 수입되며 홍콩 내 키위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 한국산 키위는 10월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11월과 12월에 최대 물량이 공급되며, 4월과 5월에 저장물량이 소량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키위의 12월 수입물량은 48톤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함

〈표 II -4-3〉 2018년 홍콩 키위 월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234	175	176.4	736	1,375	1,075	1,209	851	1,126	1,216	845	675
1 칠레	-	-	0.4	-	388	26	72	46	-	-	-	-
2 뉴질랜드	-	-	-	623	984	1,049	1,137	805	1,107	967	385	-
3 이탈리아	129	92	57	7	-	-	-	-	19	238	419	584
4 그리스	105	83	119	103	-	-	-	-	-	-	16	43
5 미국	-	-	-	-	-	-	-	-	-	-	-	-
8 한국	-	-	-	3	3	-	-	-	-	11	25	48

*주: HS Code 0810.50(키위프루트)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기준 홍콩에 수입된 신선 키위 전체 물량의 약 60%가 재수출되었는데, 이는 홍콩의 내수 소비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약 4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으로의 키위 재수출 물량 비중이 2018년 기준 전체 재수출 물량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인접 지역인 마카오로의 재수출 물량 비중 역시 상위 3위로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비롯해, 홍콩행정구역의 무관세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 -4-4〉 2016~2018년 홍콩의 키위 재수출 현황

(단위: kg, %)

국가	2016	2017	2018	비중	YoY	CAGR
전 세계	17,718,591	19,526,086	12,939,432	100.0	△34%	△15%
1 중국	17,138,973	18,863,237	12,232,413	94.5	△35%	△16%
2 마카오	391,246	453,907	501,639	3.9	11%	13%
3 필리핀	169,013	184,342	179,501	1.4	△3%	3%
4 베트남	0	0	25,879	0.2	-	-
5 싱가포르	0	24,600	0	0.0	△100%	-

*주: HS Code 0850.10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표 II -4-5〉 2014~2018년 對중국 재수출 현황

(단위: kg, %)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YoY	CAGR
전 세계	15,907,162	18,515,530	17,718,591	19,526,086	12,939,432	△17%	17%
중국	4,304,836	7,153,851	17,138,973	18,863,237	12,232,413	△35%	69%

*주: HS Code 0850.10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2) 수입제도 및 규격

가. 통관 및 검역

□ 한국산 주요 신선 및 건조 농산물 중 홍콩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현재까지 없음²¹⁾

- 신선 과채류 등 식용 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없이 對홍콩 수출이 가능함
- 재식용식물²²⁾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인 홍콩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CFS)에서 수출검역조건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원문링크 : www.cfs.gov.hk/english/import/import_ifc.html

나. 라벨링

□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품 포장 라벨링에는 제품명, 원재료, 포장업체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품라벨링 규정은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 산하, 식물안전중심(食物安全中心)에서 관할함
- 일반적으로 홍콩 내 식품 라벨링은 영어 또는 중국어(번체) 둘 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두 언어를 병기하여 라벨링 표시하였을 경우, 식품의 이름과 성분 리스트 정보는 반드시 두 언어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홍콩 행정부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만 HKD(한화 약 751만 5,5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원문링크 : www.cfs.gov.hk/english/faq/faq_03.html

-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사항 및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식품명
 - 원재료 목록
 - 유통기한
 - 제품 보관상의 특수한 조건 및 지시사항
 - 제조업자 혹은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개수, 중량 혹은 식품의 부피

21)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2019-06-21 기준)

22) 종자용, 표목, 구근류 등

다. 인증

□ 홍콩 유기농 인증

- 홍콩 유기농 인증센터(The 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er, HKORC)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기농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 인증마크는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된 유기농 제품 인증마크, △일반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변경 후 생산된 제품 인증마크, △유기농 성분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 인증마크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해당 인증은 2012년 국제유기농운동연합(IFOAM)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음

〈그림 II-4-1〉 홍콩 유기농 인증 로고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된 유기농제품	일반농장에서 유기농 농장으로 변경 후 생산된 제품	유기농 성분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

* 출처 : HKORC(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er)(<https://www.hkorc.org/>)

〈표 II-4-6〉 홍콩 유기농 인증 획득 절차

비용	초기 신청비용 HKD800(한화 약 11만 9,528원) 검사 수수료 1일당 HKD1,200(한화 약 17만 9,292원) 실험실 사용료 HKD5,000(한화 약 74만 7,050원)	
취득 절차	1. 인증신청서 제출	“작물의 윤리적인 생산, 양식, 가공기준”, “인증 관리 매뉴얼”, 인증 신청서, 관련 양식 및 적용 지침 등을 작성하여 신청함 · 데이터 세트 비용은 HKD 250이며, 이 금액은 신청서가 수리되고 인증 신청비로 전환된 후 공제됨
	2. 인증신청서 수리	작물 생산, 양식 및 가공에 대한 초기 평가 비용은 각각 HKD800, HKD800, HKD1,500이며 이는 신청서가 수락되고 인증 신청 수수료로 전환된 후 차감됨
	3. 인증신청서 서류심사	인증신청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정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4. 현지실사	현지 실사 과정에서 하루에 HKD1,200의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됨
	5. 판정	-
	6. 인증 발급	-

* 출처: 홍콩유기농인증센터(www.hkorc-cert.org/tc/service.php), AFCD(www.afcd.gov.hk)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1. 시장현황 비교

□ 홍콩에서 키위 소비는 일반화된 품목으로, 자체 생산량은 없으며 내수 수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함

- 2018년 기준 한국산 키위의 수입 물량은 0.3%에 불과하며, 주로 칠레산과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시장 내 점유율이 높으며, 홍콩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 키위가 해당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칠레의 경우 공급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 키위의 對홍콩 수출단가는 kg당 12,019원으로 국내 도매가격보다 약 3배 이상 높아 수출 매리트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한국	홍콩
생산	생산량(2018)	20,000톤(e) ¹⁾	생산×, 수요 수입에 의존
	출하시기	10~11월	생산×, 수요 수입에 의존
	생산품종	그린(헤이워드), 골드(선골드), 레드(홍양) 등	생산×, 수요 수입에 의존
유통	도매물량(2018)	9,274톤 ²⁾	N/A
	도매가격(2018)	3,596원/kg ³⁾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438톤 / [對홍콩] 91톤(20.8%)	[전체] 21,676톤 / [한국산] 54톤(0.3%)
	수출입가격(2018)	[평균] 5,593원/kg / [對홍콩] 12,019원/kg	[평균] 2,590원/kg / [한국산] 7,863원/kg ⁴⁾
	관세율	무관세	

* 주1: 추정치. 국내 키위 생산량에 대한 공식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약 22,000~23,500톤가량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됨(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남대학교 인터뷰 결과)

* 주2: 국내 도매물량은 국산과 수입산 반입물량을 합산한 수치임

* 주3: 국내 도매가격은 국산과 수입산의 평균 가격임

* 주4: 한국의 對홍콩 수출단가 집계치와 홍콩의 한국산 키위 수입단가 집계치에 차이가 있으나, 각 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자료이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기재함(ITC Trademap 자료 활용)

* 주5: 환율기준 : 1USD=1,190원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GTA(Global Trade Atlas),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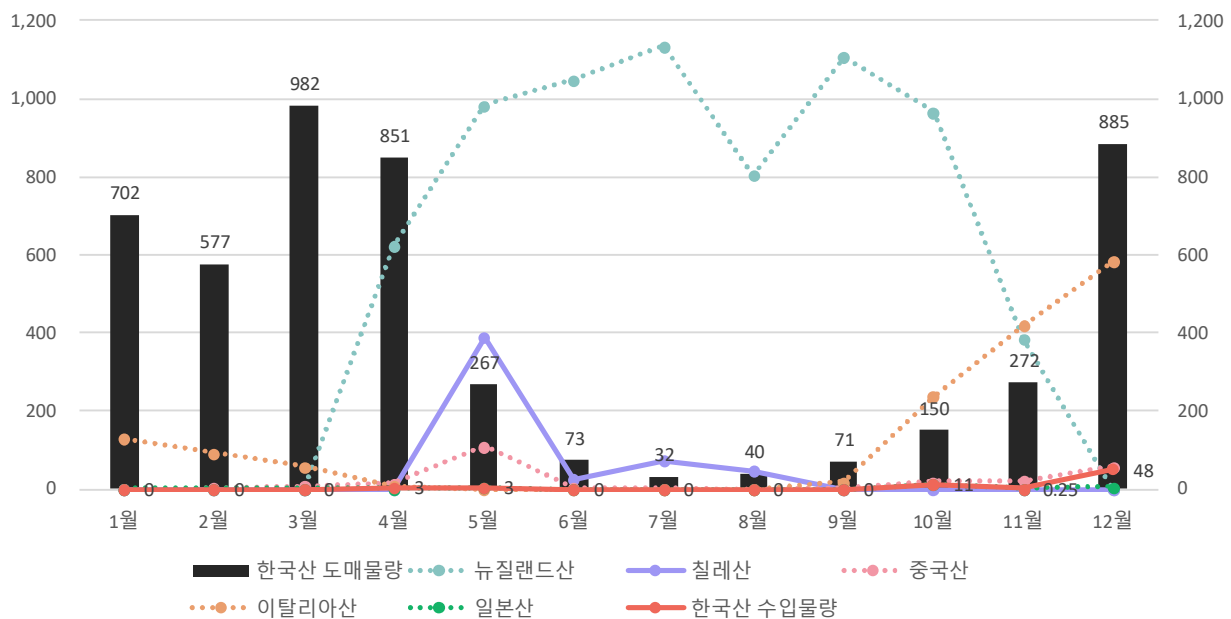
2. 수출국 시장분석

□ 홍콩은 수입을 통해 연중 키위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브랜드의 경우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산 키위를 교차로 공급하여 연중 공급망을 확보함

- 뉴질랜드산과 이탈리아산은 전량 제스프리 상품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산이 공급되며 이어서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이탈리아산이 유통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형성함
 - 이를 통해 홍콩 키위 시장에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와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함
- 한국산은 4월과 5월, 10월~12월에 유통되나 수입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월 최대물량은 12월 50톤가량에 불과함
 - 홍콩 시장 내 한국산 키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일부 소매점에 한정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입산	칠레												
	뉴질랜드												
	이탈리아												
	한국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HS Code 0810.50 기준

□ 특정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한국산 인지도가 미미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소비행태	- 특정 브랜드(제스프리)의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 인지도 매우 높음 - 중국산 키위가 저가시장을 형성하여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나, 신뢰도 낮음
품질비교	과육이 무르고 당도가 높으며 일반적인 제스프리 키위와 유사한 품질수준
한국산인식	- 한국산 인지도 매우 낮으며 수요 높지 않음 - 일부 소매점에 한정적으로 유통

* 출처 : 자체현지조사 결과(매장방문, 전문가인터뷰)

□ 원산지별 가격동향

구분	자국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이탈리아산	한국산
수입단가	-	1,666원/kg	4,236원/kg	3,332원/kg	7,863원/kg
도매가	-	-	-	-	-
소매가	-	-	978원/개	-	-

주1)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11) 시점 소매유통채널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2) 환율기준 : 1USD=1,1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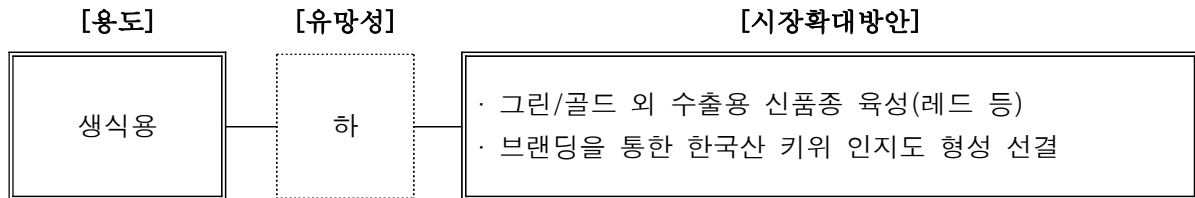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GTA(Global Trade Atlas)

□ 원산지별 평가

국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칠레산	공급물량,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저가시장 점유	N/A
뉴질랜드산	- 특정브랜드(제스프리) 상품 -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로 신뢰도 구축 - 연중공급망 확보하여 인지도 및 로열티 높음	- 그린키위(헤이워드) 15.0 °Bx, 137g - 골드키위(선골드) 18.5 °Bx, 109g
이탈리아산	- 특정브랜드(제스프리) 상품 - 뉴질랜드산과 유통시기 교체하여 공급 - 뉴질랜드산 대비 품질 저평가	N/A
한국산	인지도 없음	- 그린키위(헤이워드) 13.8 °Bx, 110g - 골드키위(호트16A) 15.0 °Bx, 110g

IV. 시장확대방안

1. 품목유망성



□ 현재 홍콩 키위 시장에서 한국산 키위가 가지는 강점은 파악되지 않으며, 인지도가 낮고 경쟁국산 대비 품질수준이 낮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뉴질랜드산과 유통시기가 달라 직접적인 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산보다 다소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이탈리아산과 유사한 시기에 유통됨
 -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산과 한국산 키위의 품질 수준은 견주어볼 만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특정 브랜드의 인지도와 소비자 로열티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해당 상품 수준 이상으로 품질향상 및 인지도 개선이 요구됨

· 없음	· 낮은 인지도 및 품질수준
S W O T	
· 이탈리아산과 유통시기와 유사해 뉴질랜드산과 직접적인 경쟁구도 형성 ×	· 특정브랜드 인지도 및 로열티 매우 높음

□ 홍콩에서 키위는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과일로, 특정 브랜드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그린 및 골드키위의 경우 특정브랜드(제스프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해당 브랜드는 키위의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유통함
 - 전 세계적 차원의 브랜딩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와 신뢰를 확보함
- 해당 브랜드는 산지의 다양화를 통해 홍콩 시장에 키위를 연중 유통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재배된 키위는 4월부터 11월까지 유통되며,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 뉴질랜드의 키위 단경기에는 이탈리아산 키위로 대체하여 물량을 공급하며, 이탈리아산 키위는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유통됨

〈표Ⅲ-1-1〉 홍콩 키위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이탈리아산												

- 홍콩시장 진출 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스프리=키위’라는 인식을 형성함
 - 각종 프로모션, TV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연중 진행하여 홍콩시장 내 입지를 강화함
 - 특히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는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키위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증정 등 사은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

□ 한국산 키위는 홍콩의 일부 식품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홍콩 소비자들은 뉴질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는 키위를 고급으로 인식하며, 일부 일본산 키위도 고품질로 소비하나,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2. 시장확대방안

시 장 확 대 방 안	품질	· [당도] 그린 15.0 °Bx 이상 / 골드 18.5 °Bx 이상 · 뉴질랜드산 수준 이상으로 품질향상,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수출용 신품종(레드키위 등) 육성 필요
	홍보·마케팅	· 인지도 구축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요구 · 자체브랜드 및 산지브랜드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산지별 일관된 포장디자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확대 유도

□ 특정 브랜드의 시장 내 입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한국산 키위의 인지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자체브랜드 또는 산지브랜드의 개발 및 육성을 통해 홍콩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시장 내 인지도를 형성해야 함
- 브랜드나 산지별로 일관된 포장 디자인을 구축 및 유통함으로써 시장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한국산 키위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그린 및 골드 키위 외 새로운 품종의 수출품목 육성이 필요함

- 이미 그린 및 골드키위 시장은 특정 브랜드의 비중이 매우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수출품종의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함
- 최근 일본산 레드키위(레인보우키위)가 홍콩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며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
 - 일본산 레인보우 레드키위는 과중 120g 이상, 당도 18 ° Bx 이상의 특품 프리미엄 품종임
- 일본산 레인보우 키위는 품질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포장 디자인을 고급화하여 홍콩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음
 - 개별과에 스티로폼 난좌망을 씌워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박스 포장 내 별도의 포장재를 덧깔아 상품을 보호하면서도 선별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함
 - 또한 박스 내에는 키위의 산지증명서, 섭취방법 등 관련 정보가 기록된 안내문을 동봉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그림Ⅲ-2-1〉 일본 프리미엄 레인보우키위 포장방식 예시

